

창3:7-15 창세기를 다룰 때 두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문자주의와 신화화입니다. 창세기는 역사 속에 벌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나 자구의 해석에 갇혀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들을 신문 기사보다 더 짧게 기록한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 로마 신화나 단군신화 읽듯 그렇게 신화로 읽어서도 안됩니다. 대부분의 창세기를 언급한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런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균형감각이 필요합니다. 자구에 얽매이다 이단에 빠지거나, 신화화해서 자유주의에 빠지지 말고 오늘 말씀도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창3:7-15

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4.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기도)

창세기에 나온 에덴 동산 기록은 대칭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B-B'-A'식입니다. 첫 사람을 에덴에 들였다, 에덴서 쫓아내신 게 A와 A'입니다. 에덴에서 돕는 베필을 만나고, 뱀을 만난 게 B와 B'에 해당됩니다. 첫 사람들은 사단이 가장한, 뱀의 꼬임에 빠집니다. 사단이 첫 사람에게 써서 성공한 전략은, 지금도 쓰는 전통적 방법입니다. 현대에 사단을

송배하는 종교 사단교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미 들어 갔습니다. 사단교 경전 첫 구절이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한 말 요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동산에서 왕 노릇할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네가 직접 왕되면 되잖아?” 그게 선악과를 따 먹으라는 유혹의 요지였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나자, 곧 수치를 느낍니다. 죄 없을 때 벗은 건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죄는 관계를 어그러뜨려 수치를 느끼게하고, 죄지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죄책감은 하나님께로 부터 피해 숨게 만듭니다. 죄책감은 하나님이 인간 마음에 두신, 일종의 경보 사이렌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수치를 느끼게 만드는 경보 사이렌같습니다. 토네이도 온다고 사이렌이 큰 소리로 울 때, 최악의 행동은 사이렌을 꺼 버리는 겁니다. 토네이도 오기 바로 직전에는, 비도 그치고 바람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시끄럽던 사이렌 까지 끄고나면, 더할 나위없이 조용하고 평안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죄짓기 최적의 여건 이 조성되는 겁니다.

죄책감 느낄 때, 최악의 선택은 원인은 내버려 둔채, 거추장스런 죄책감만 제거하는 겁니다. 그건 병의 원인은 치료 않고, 진통제만 먹는 것과 같습니다. 병을 키웠다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시면, 감사해야 합니다. 뻔뻔하고 대담한 것을 자랑 삼는 세속 문화와는 전혀 안 맞지만, 죄책감은 죄를 자각시키는 선한 장치입니다. 죄를 자각해야 비로서 죄 지은 상대와 그리고 궁극적인 죄책 대상이신 하나님께 용서를 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느낀, 첫 사람들 행동이 어땠습니까? 수치를 가린 겁니다. 그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 숨습니다. 모든 걸 다 아시고 감추인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숨기려고 숨고, 무화과 잎 엮어 치마 해 입는 첫 사람들 모습이 얼마나 어설프니까? 슬픈 코메디입니다. 실제 자기들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실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하는 걸 하나님

모르실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러낼 용기를 내십시오.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추호도 감출 생각을 버리십시오.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가리켜 coram deo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진솔한 모습만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분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서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 부르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교제하기 원하시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두려워 한다는 사실 또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소리가 들릴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기 원하시지만, 그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죄는 그렇게 관계를 깨는 속성이 있습니다. 엄마가 외출할 동안 꽃병을 깬 아이를 지켜 보세요. 엄마 오는 소리 들릴 때, ‘엄마’ 하고 반가와하나? 크든 작든 모든 죄는 관계를 깨고, 죄지은 대상을 멀리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그래서 피해 숨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신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없을 때 깨뜨린 그 꽃병이 고려청자라고 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이가 고려청자 가치를 알 턱이 있습니까? 그저 엄마가 애지중지한 것 밖에.

첫 인간들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동기에서 나온,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반드시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뱀이 한 말처럼, 선악과를 따 먹고도 즉시 죽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꺾은 가지를 보이며) 그럼 이 가지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보기는 파랗게 살아 있지요? 그런데 죽은 겁니다. 뿌리로부터 떨어져 나온 가지는 반드시 죽습니다. 다시 생명을 공급받는 뿌리에 접붙여지기 않으면, 당장은 산 것 같지만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은 아담의 행동은 뿌리에서 잘린, 즉 관계가

단절된 것을 상징합니다. 아담은 그후로 구백년 이상 더 살다 죽습니다. 그런데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예외없이 죽는 것입니다.

창2:16-17 기록된 경고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고려청자가 얼마나 귀한지 아이가 전혀 가치를 모른 것처럼, 첫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더 유리할 것 같아 보이는 길을 골랐습니다. 성경에 많은 명령이 있는데, 귀찮고 성가시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 명령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왜 그런 명령하시는지 그 까닭이나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명령하신 게 이해가 되든 안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를 물으셨을 때, 아담이 하는 말 좀 들어 보십시오? 하와를 보고는 '이는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 극찬을 했던 아담 아닙니까? 그랬던 아담이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깁니다. 하와를 가리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러합니다. 은연중에 하나님께도 책임의 일부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와는 또 뱀에게 떠 넘깁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보통 보이는 반응 아닙니까?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책임을 떠 넘깁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세월호 침몰은 국가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위험하게 배를 운행해 수백명의 희생자를 낸 해운사 책임 이상으로, 사고가 난 다음 지금까지 대응하는 것을 보면 국가로서는 해서는 안될 행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범죄 행위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범죄 집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서로 책임을 떠 넘기다, 이미 사망해버린 해운사 책임자에게 모두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것처럼 지금은 여론을 몰아 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교회 유스 아이가 세월호에서 희생됐는데, 교인인 아이 아빠가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면서 단식하니, 목사님도 광화문에서 일인 시위 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믿음 없이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조국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일에 대해, 각각 책임을 물으십니다. 3:14-19 보십시오.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리고 뱀에게 각각 정확히 책임을 물으십니다. 정말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coram deo 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이나 환경 탓하면서 죄에서 달아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신 당신의 완전한 성품에 걸맞는 방식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죄를 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비해, 벌이 너무 심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이 지은 죄의 동기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얼마든지 죽였을 죄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모든 죄의 속성은 동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신 롬5:12-21은 첫 사람에게서 물려받은 죄의 속성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단정합니다. 어떤 종류의 죄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에 있습니다.

첫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고통스런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창세기 나머지 기록은 타락의 결과로 무너져버린 인생들의 고통스런 삶의 기록들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죄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것이고, 그래 각각의 책임을 물으신 판결문 중에도 창3:15을 주신 겁니다. 뱀에게 내리신 판결문입니다. 3:15 같이 읽겠습니다.

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은 사단의 조종을 받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사단이 우리의 적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악을 행하고 그 결과 죽음의 길 가게하려고, 지금도 어떤 짓이라도 합니다. 3:15절에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모두 3인칭 단수입니다. 물론 단수이지만, 집합명사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가지고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곧 이어 가족옷을 해 입히신, 하나님의 예언적 행위와 연결됩니다. 수치를 가리기 위해 첫 사람이 해 입었던, 무화과 앞으로 엮어 만든 치마는 한나절도 못갑니다. 앞이 말라 바스러지면, 수치가 다시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 첫 사람의 수치를 가릴 수 있게, 가족옷을 해 입히십니다. 가족이 어디서 나오니까? 다른 짐승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가족은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이 희생되어야만, 사람의 수치를 가릴 가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옷은 속죄 제물의 상징이 됩니다. 가족옷을 해서 입히며 수치를 덮으신 하나님의 행위극과 연결할 때, 3:15 해석이 보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흔히 proto-gospel 신학적으로는 원복음이라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하도록 이 땅에 계실 동안 사단이 준동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에 비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란 말씀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영원히 물리치신 것을 가리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이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권세 아래 떨어진 사람들에게 복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단을 물리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

을 부르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연스러운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왜냐면 하나님 기준에 따라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핍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특별히 구도자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지만 아직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은 주님을 더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히 늘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